

소니 콘솔게임기 'PS5' 전 세계에 4000만대 팔렸다

등록 2023.07.28 10:35:40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의 콘솔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 (사진=SIEK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5 콘솔이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판매량 4000만 대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의 짐 라이언 최고경영자(CEO)는 28일 플레이스테이션(PS) 블로그를 통해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 보내주신 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출시된 PS5에서는 독창적인 인디 게임부터 AAA 블록버스터 게임까지 2500개 이상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두 달 동안에만 파이널 판타지 XVI, 디아블로 4, 스트리트 파이터 6 등 대형 신작 게임이 입점했다.

짐 라이언 CEO는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서 불구하고, PS5를 제때 배송해 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다. 하지만 공급망이 정상화돼 수요를 따라가기 까지는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쏟았다. 지금은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져 충분한 PS5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그동안 억제된 수요 역시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PS5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게임 카탈로그와 함께 출시됐으며, 훌륭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추진력은 계속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오늘보다 PS5를 경험하기에 더 좋은 때는 없을 것이라 자부한다"면서 "PS5 출시 이후, 플레이어들은 게임이 다른 어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만큼 방대하고 창의적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게임들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PS5를 개발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의 적응형 트러거 및 햅틱 피드백 등과 같은 혁신적인 기능들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플레이스테이션 VR2 개발에도 마찬가지로

다"며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스와 3rd(서드) 파티 파트너사는 이런 놀라운 혁신적인 기능 덕분에 게임 개발의 창의성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고, 게이머들에게 한 세대의 도약을 보여줄 놀라운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